

배포 일시	2022. 10. 26.(수)			
담당 부서 (총괄)	항공정책실 항공안전정책과	책임자	과 장	유경수 (044-201-4244)
		담당자	사무관	강경범 (044-201-4255)
			사무관	오상호 (044-201-4254)
			주무관	김홍일 (044-201-4246)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 대한항공 필리핀 세부공항 활주로이탈 관련 사고수습본부 설치·운영 등 사고 대응(6보)

- 국토교통부 사고수습본부(본부장: 하동수 항공정책실장)는 대한항공 여객기 필리핀 세부공항 활주로 이탈 사고와 관련하여 사고수습 추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 (사고 개요) 10.24일 오전 00:07경(우리나라 시간, 이하 같음) 대한항공 여객기(KAL 631편, 인천 10.23일 18:35경 출발 → 세부, 승무원 11명·탑승객 162명)가 필리핀 세부공항에 착륙 도중 활주로 이탈

- 금일은 국토부 조사관 및 안전감독관이 사고현장을 점검하는 한편, 대한항공 기술진이 항공기내 산소탱크 등 각종 위험물 분리 제거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 또한, 항공기 객실 내 선반에 실은 승객 짐을 내려 오늘까지 해당 승객들에게 전달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기울어진 항공기 자세를 바로잡고 이동작업을 하기 위한 크레인 4대가 공항에 동원되었으나, 사고기 주변의 지면이 침수되어 있고 평탄하지 않아 육중한 크레인이 사고지점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에 따라, 우선 지면 평탄화 작업과 함께 항공기 자세를 바로 잡기 위해 항공기 하단에 대형 에어튜브를 집어넣는 시도 등을 할 계획이나, 현지에 집중호우가 내리고 있어 일시 작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 또한, 항공기 하부에 적재된 화물과 수하물을 내리기 위한 출입문과 적재상태를 점검하고 짐을 내리기에 필요한 작업을 일부 하였으나 호우로 인해 일시 중지된 상황입니다.
- 한편, 우리 정부의 사고조사단은 현지에 파견된 각국 조사단과 함께 사고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 또한, 사고 항공기로 인하여 세부공항은 낮 시간(현지 시간 오전 5시부터 오후 5시까지)동안 제한적(시정 5km 이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항공편을 이용하여 세부로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이용객들은 반드시 운항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공항으로 출발하거나 여행을 계획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강경범 사무관(☎ 044-201-425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